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6년 4월 16일(목)

참석 위원	최은수 위원장, 김광석 부위원장, 이경화,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박세진, 임태순, 백명희, 안호림 (10인)
회사 참석 인원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1. 개회

[최은수 위원장]

시청자위원회 4월 정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태순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심의 의견

[임태순 위원]

저는 4월 5일 와이드 11 '피지컬 AI 노린 사이버 공격, 정부 대응 체계 구축 착수' 기사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인공지능이 로봇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되는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시의성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 기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피지컬 AI 해킹이 설비 파손이나 인명 피해, 나아가 국가 공급망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해킹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함께 설명한 점은 기술 발전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전달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정보 유출 중심의 사이버 공격과 달리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위협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 점 역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응 방안으로 모의 해킹 훈련, 산업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적 피해 산정 모형 개발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적 대응 방향까지 전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미래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기술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보도를 지속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도본부장]

단독 취재로 내보낸 기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지컬 AI를 비롯한 신기술에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여 주기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뉴스에서 선제적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회적·법률적 대응은 기술 발전에 비해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합뉴스TV에서 예를 들어 'AI와 법' 같은 지속적인 타이틀을 정해 하나의 어젠다를 선도하는 기획을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도본부장]

지난 회의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관련 코너 신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이란 전쟁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답게 뉴스 특보 형태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포함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개선된 화면 구성 덕분에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단조로움도 많이 보완되어 보기에 편안했습니다.

이슈에 따라 집중 보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북한 관련 사안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직접 대통령을 비방하였고, 지난해부터 정동영 장관 관련 발언에 대한 북한의 비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 집속탄 시험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에는 남북 관계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곧 있을 북중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본부장]

매우 공감이가 가는 지적입니다. 현재 이란 전쟁에 취재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이란 방면 이동 배치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별도의 보도를 통해 일부 다루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반도 이슈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잘 대비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백명희 위원]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프로그램의 '오늘 감자튀김 드실 분을 직접 모집해 봤더니' 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앱을 통해 번지고 있는 '감자튀김 모임' 현상을 다룬 내용으로, 흥미로운 제목에 이끌려 시청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모임으로, 연합뉴스TV가 공고를 통해 모집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얼굴이 노출됨에도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진행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대상 모임이었으나, 신청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학생이 1명에 불과하여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일종의 새로운 놀이 문화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감자튀김이라는 매개체로 모여 일회성으로 짧게 즐기고 헤어지는 방식은, 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나 책임 부담 없이 외로움을 달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 긴 대화나 자기 소개 없이 감자튀김을 나눠 먹는 가벼운 목적만 수행하고, 식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만남이 오히려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호회가 정기적이고 폐쇄적이었다면, 감자튀김 모임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통해 매우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최소한의 동질감은 유지하되 사적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느슨한 연대를 선호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프로그램을 통해 MZ세대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선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콘텐츠는 취재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콘텐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이런 즉석 만남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골프 한 팀이 부족할 때 카카오톡으로 올리면 바로 모이는 것처럼,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즉흥적 만남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미국 시카고의 한 로컬 신문이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며 크게 성공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그 매체는 동네 소식, 주민들의 결혼, 취업, 행사 등을 직접 제보받아 게재하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URL을 퍼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연합뉴스TV도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송에 올리기 어려운 소재라도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청자 뉴스' 채널을 만들면, 시청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URL을 퍼뜨리는 자발적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3·제4의 세력이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부위원장]

KBS에도 원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KBS 열린 채널'이 있고, 이는 방송법상 근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호림 위원]

진행 방식과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핫 뉴스'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국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서 기자가 화면을 터치하고 밑줄을 그으며 설명하는 방식이 집중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초반부 화면 구성이 다소 아쉬웠으며, 여러 기사가 동시에 배열되다 보니 시각적으로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작아 일부 기사 제목과 내용의 식별이 어려워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전달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월드 앤 이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동 정세 관련 보도에서 화면 구성을 시각화한 방식이 국제 뉴스를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는 데 높은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여야의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 형식의 보도 방식을 도입하면, 시청자가 각 입장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송을 보니 패널 출연 시 화면 왼쪽 상단에 소속과 이름을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접속한 시청자도 즉시 패널을 파악할 수 있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이 시각 핫 뉴스'는 연합뉴스와 협업하여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 사이의 주요 뉴스를 클릭 수 기반으로 배치하고, 진행자가 밑줄을 그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형식의 코너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기사가 너무 많이 배치되어 우상단의 작은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수를 약 10개로 제한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터치 밑줄 방식의 집중도 저하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드 앤 이슈'에 대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사진과 발언 자막 등 그래픽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 소속·이름 자막 표시 방식은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안서연 위원]

저는 '리부팅 지방시대 - 지방 미술관의 돌풍과 로컬 문화의 재발견'을 시청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의도에 잘 부합하는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술관 편에서는 전주, 대구, 청주 세 곳을 다루었는데, 특히 청주에서는 옛 담배 공장이 수장형 미술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영상미로 잘 구현해 주었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된 사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주의 폐 공장에서는 사гал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예술이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사례도 문화 보급 정신을 기리는 경위와 함께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유명한 사례 위주로 소개된 것 외에도, 소규모 로컬 갤러리나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본부장]

덕분에 이번 '지방 미술관'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는데,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만들어진 콘텐츠였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 추사 김정희, 신윤복, 김홍도 등의 작품이 전시된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리프팅 지방 시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지방의 경제, 인구,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소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연합뉴스TV 스페셜 '고환율 비상, 한국 경제 향방'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환율의 결정 구조, 고환율에 따른 기업의 현장 체감, 일반 국민의 애로 사항 등을 자세하게 다루어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자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 등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한 수출업자들이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이 국내 달러 수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고환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환율이 일부 수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장을 잘 다루어 고환율 위기의 엄중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 '하청 노조 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 파장 현실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이견 속에서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시행 후 우려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하청노조 400여 곳에서 교섭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섭요구가 받아들여진 곳은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노동단체의 교섭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에 따른 법 집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노사 간 안정적 교섭기반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동 프로그램의 제작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의 개정 배경과 공사 및 기초지자체 등 공공부문으로 노동조합법 적용 범위 확대 등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노사 간 상생을 통한 활력회복을 도모할 있도록 앞으로도 노조법 개정과 관련 노사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해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환율 관련 보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5월 고환율로 인한 유류 할증료 인상, 중소기업의 환율 비상 등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겠습니다.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파장 현실화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후속 보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전계순 위원]

유튜브를 점령한 가짜 이국종 딥페이크 영상과 AI 딥페이크의 단면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사칭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국종 교수의 조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채널에는 이국종 병원장

의 사진과 음성을 모방한 AI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채널은 채널 소개란을 통해 "올바른 의학 지식과 현실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적었으며, 지난 20일 개설된 이 채널은 일주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27일까지 올라온 영상은 6개, 이 영상들에 대한 누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채널에 올라온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 내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해당 영상은 27일 기준 7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2천 개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유튜브를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고 구독 누른다", "너무도 유용한 생존법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평소에 교수님을 늘 존경했다. 오늘도 중요한 건강상식 감사하다. 응원한다", "오늘 우연히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다. 앞으로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자주 듣게 해주시길 고대한다", "홀로 사는 76세 된 노인이다. 귀중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다" 등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국종 병원장은 자신을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 채널 및 유사 계정을 통한 각종 요구는 모두 사칭에 해당하니 절대 응하지 않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기술 자체보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봅니다. 요즘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꽤 현실적인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피해, 사회 신뢰 붕괴, 범죄 도구로 악용, 처벌 기준, 피해 구제 절차가 아직 충분히 정교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해외 서버·익명성 때문에 추적·처벌 어려움, 창작·미디어 산업 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도 국민들에게 '딥페이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조적 문제인 플랫폼 책임과 법 미비 등에 대해서도 추적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가짜 이국종 딥페이크 뉴스는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을 위한 딥페이크 구별 방법 소개 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AI와 법' 같은 큰 타이틀 아래 기획 보도로 다룬다면 연합뉴스TV의 일관된 기획력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학부모와 청소년,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띈 보도 두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돈 줄게, 같이 가자' 여자 초등생 유인 60대 검거 사건입니다. 저녁 10시 반경 광주 북구에서 휠체어를 탄 A 씨가 초등학생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20대 2명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시도 단계에서 보도된 점이 주목됩니다. 통상 유인 범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시도 단계를 보도한 것은 달라진 점으로, 희망적인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해 기사가 노출된 것인지, 처음부터 기획된 보도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 한 고교에서 동급생에게 접이식 흉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이 심리 상담 제공, 단체 문서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회의와 현장 경험을 돌아보면, 폭력 행위가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알리면 고자질쟁이가 된다',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의 형식이 종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연합뉴스TV에서 학교 및 정부가 시행하는 대응 장치와 심리 치료 등의 실태, 실질적인 효과와 부족한 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도본부장]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교육적 문제입니다. 단발 보도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부위원장]

연합뉴스TV 스페셜 420회 '미래를 여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이 노동 산업에서 지식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통해 가족 전체가 달라붙어야 했던 농사가 데이터와 AI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 기술을 나열하는 대신 경북 성주의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스마트 농업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수확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과 귀농자를 위한 새로운 활력으로 스마트팜을 조명한 점도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보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팜 구축에 드는 수억 원의 초기 비용과 손익분기점까지의 현실적인 기간, 대출 원리금 상환 등 농가 운영의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귀농 중심의 성공 사례에 집중하다 보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 노령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선진 해외 사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형 스마트팜(예: 마곡나루역 인근 사례), 옥상 활용 스마트팜 관련 법적 문제 등도 향후 방송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송은 스마트 농업이 우리 농촌의 피할 수 없는 미래임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었으나, 향후에는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비용 문제와 에너지 문제 등을 함께 다루는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비용, 에너지, 지속 가능성까지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뉴스 화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화면에 '연합뉴스TV' 로고와 '뉴스 특보' 자막이 중복 표시되고, 중간에 영문 로고까지 보이지 않게 겹쳐 있어 불편합니다. 앵커 뒤 노트북 두 대에 '연합뉴스TV'가 표시되는데, 실제로 앵커들이 노트북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프롬프터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아예 노트북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 투나잇'을 보는 중에도 화면 좌상단에 자막, 우측에 뉴스 바나, 시간, 하단 스크롤 자막, 경기 결과 등이 나가는데도 '뉴스 투나잇'이 계속 유지되어 시청하기 불편했습니다. YTN처럼 심플하게 정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기본 모토로 화면을 직관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보도 전문 채널은 공중파·종편과 달리 정보량이 많고 화면이 복잡한 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면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회의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앵커 뒤 노트북의 '연합뉴스TV' 로고를 제거하였고, 화면 좌하단의 '뉴스특보' 중복 자막도 삭제하였으며, 앵커백의 '뉴스투나잇' 글자도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란 전쟁 보도 중 시청률이 3~5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널명을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심플한 것이 아름답다'는 모토로 화면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은수 위원장]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 기타 안건

[최은수 위원장]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8일에 저의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어 6월만 회의를 25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는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장현 센터장]

6월 25일 일정 및 회의실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 드리겠습니다.

4. 폐회

이것으로 연합뉴스TV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